##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제도 개선 순회 간담회

내달 4일 대전·세종·충남 시작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2020년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별 순회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순회간담회는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 및 외국인력 이용 편의제고를 위 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2월4일 대전·세종·충남지역을 시작으로 ▲부산·울산지역(2월 14일) ▲광주·전남지역(2월19일) ▲인

천지역(3월6일) ▲전북지역(3월19일) 등 5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간담회에선 생산성에 기반한 최저임 금 구분적용,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연장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그동안 현장에선 외국인근로자의 생 산성이 내국인근로자보다 낮음에도 불 구하고 수습기간(3개월)을 국내근로자 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 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승호 기자 bada@

## 롯데마트, 문화센터 봄학기 수강생 모집

롯데마트가 오는 3월 2일부터 5월 31 일까지 진행되는 '봄학기 문화센터 회 원모집'을 오는 1월 30일 오전 10시부 터 시작한다.

롯데마트는 봄학기 문화센터 테마를 '2020 헬로 스프링, 설레는 봄의 시작', '50+ 새로운 하루 오팔 욜로세대', '취향의 공간! 롯데 문화 살롱', '롯데마트 파트너사 제품 콜라보레이션 특강' 등으로 정해 2020년의 시작을 통해 새해목표 설정 및 시니어 고객들을 위한 다

양한 강좌를 선보인다.

이외에도 롯데마트에 입점한 업체의 제품을 활용한 '파트너사 제품 콜라보 레이션 특강'을 진행해 과자집 만들기, 쿠킹클래스 등을 진행한다.

한편, 봄학기 접수는 각 점포 내 문화 센터에서 방문 접수와 함께 롯데문화 센터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 시 5천원 선착순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

### 조재룡 고려대교수, 한국비교문학회장 취임

고려대학교는 문과대학 불어불문학 과조재룡 교수(사진)가최근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비교문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한국비교문학회 제25대 회장으로선출돼 취임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임회장임기는 올해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이다.

한국비교문학회는 1959년 5월 창립 된 이래 61년의 전통을 가진 학회로서



교수와 연구자, 대학원생등 6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회는 최근 연구재단등재학술지인 '비교문학' 79호를 발

행했으며, 지난해 서울에서 60주년 국 제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 다. /한용수기자 hys@



건국대 수의대 학생들, 라오스서 동물의료 봉사활동

건국대학교는 수의과대학 학 생 봉사단 '바이오필리아(Bio

philia)' 학생들과 수의학과 교수, 수의대 동문 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해외 수의료 봉사단이 지난달 10일~20일까지 라오스 베엔티엔주에서 해외 동물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라오스 국립대 수의대와의 교류협력 협약에 따라 바이오필리아와 라오스 국립대 수의대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 KT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의 근로자성



김 보 라 <sub>변호사의</sub>

노동법률 읽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 가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 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 른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 근 KT스카이라이프의 서비스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서비스 기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실 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

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 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 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 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 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 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위 서비스 기 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구체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평가를 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았다. 사용자가 PDA를 통해 서비스 업무를 배정하면서 판매대금, 출장비 수령 여부등을 등록하였고, 고객 전화 설문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 수행의 원활성을 평가하였으며, 직영기사와 마찬가지로기술교육을 정시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정한 사업장에 출퇴근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오전8시경부터 PDA로 업무를 배정하면 그후인 오전 9시경업무를 시작하고, 고객센터로 A/S 요청이 접수되는 오후 6시가 지나야 업무시간이 종료되었으며,

사용자가 PDA로 배정한 고객의 자택이나 사무실 등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독립 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 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근로 자는 업무에 필수적인 고가 장비를 사 용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사 용자로부터 배정받은 업무를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없었기 때 무이다.

아울러 근로자가 이윤 창출이나 손 실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근로자가 사 용자를통하지 않고는 독자적으로 시장 에서 고객과 접촉, 영업을 수행할 수 없 었고, 근로자가 받은 영업수수료 명목 의 돈은 기존 업무 수행시 교부된 명함 을 본 고객이 연락이 온 경우 사용자에 게 업무 이관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와 독자적으로 이윤창 출이 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 이다.

그 외에도 대법원은 근로자가 받은 수수료 등 보수는 노무의 대가일 뿐 다 른 성격이 있지 않은 점, 사용자에게만 전속하여 서비스 업무를 수행한 점, 제 공한 노무를 둘러싼 경제적·사회적 조 건을 보면, 근로자의 소득활동이 사용 자에게만 의존하고 있고, 근로자가 수 행하는 업무가 사용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점 등도 판단근거로 삼았다.

/법무법인 바른

# BTS, 현대차 '넥쏘' 타고 그래미어워즈 참가

〈방탄소년단〉

#### 수소 친환경·지속가능성 전파

방탄소년단이 26일(현지 시간) 미국 LA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개최된 제62 회 그래미 어워즈 레드카펫 행사에 현 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쏘'를 타고 참석 했다.

미국 음반업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 인 그래미 어워즈에 방탄소년단이 수 소 전기차 '넥쏘'를 타고 나타난 것은 현대차와 함께하는 새로운 수소 캠페 인의 시작을 성공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넥쏘 5대 를 방탄소년단에게 제공했다.

현대차는 이날 '넥쏘'의 그래미 어워 즈 깜짝 등장을 시작으로 미래 청정에 너지 '수소'의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 을 전파하는 글로벌 수소 캠페인을 본 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현대차는 새 로운 수소 캠페인을 위해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넥쏘 옆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

을 '팰리세이드 글로벌 브랜드 홍보대 사'에서 '현대차 글로벌 브랜드 홍보대 사'로 격상시켰다.

이처럼 현대차가 미래 에너지 '수소' 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방탄소년단 과 손을 잡은 이유는 밀레니얼 세대 (1980년대초반~2000대초반출생한세 대)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는 '수소'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해 같이 고민하면서 이들과 함께 성 장하기 위해서다.

현대차 관계자는 "방탄소년단과 함께 선보일 다양한 수소 캠페인을 통해 현대차 브랜드 지향점인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밀레니얼 세대와 공 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인사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전보 △일정행정관 이승규
- ◆통일부 ◇과장 전보 △대변인실 공보담 당관 여상기
-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국장급) 승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 서한순 ◇과장급 전보 △인사혁신국 심사 임용과장 임병근
- **◆전북 군산시** ◇서기관 전보 △문화관광

국장 직무대리 최성근 ◇사무관 전보 △행 정지원과장 김영란 △기획예산과장 고대 성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관광진 흥과장 서광순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여성가족과장 이 동연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건설과장 이삼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농촌자원과장 문영엽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하수과장 신형삼 △의회사무국 정귀영 △ 의회사무국 이길용 △중앙동장 주병선 △ 에너지담당관 직무대리 김진현 △주택행

정과장 직무대리 윤병철 스보건사업과장 직무대리 김연실 스먹거리정책과장 직무대리 신동우 스회현면장 직무대리 강의식 스임피면장 직무대리 이동기 스대야면장 직무대리 노판철 스개정면장 직무대리 이학천 스나포면장 직무대리 황은미 스신풍동장 직무대리 박종길 스흥남동장 직무대리리 최우진 스구암동장 직무대리 강홍재

<del>---</del> 부음

- ▲장복근씨 별세, 유현식(울산제일일보 총 무국 차장)씨 장인상=24일 오전 8시, 울산 영락원 302호, 발인 29일 오전 7시 30분, 052-272-1111
- ▲함숙녀씨 별세, 김연선(전 현대종합상사 상무)·김연숙·김연옥·김연일씨 모친상, 정 환영(전 만도 전무)·박종복(SC제일은행 장)씨 장모상, 김정선·윤일영씨 시모상= 27일오전1시5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29일 낮 12시, 02-2258-5940
- ▲김인숙(전 현수회 회장)씨 별세, 고정호 (전 한라그룹 전무이사)씨 모친상, 임중수 (성균관대 교수)씨 시모상, 고유선(연합뉴스 기자)씨 조모상=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29일 오전 10시, 02-2227-7594
- ▲이재은 씨 별세, 이유진(영화사 집 대표) 씨 부친상=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 발인 29일 오전 8시, 장지 광림 감람동산 추모공원, 02-3010-2262